

2026. 9.

BRICS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 연구원

1. 개요

2026년 8월 8일,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열린 제11차 BRICS 문화장관회의에서 '보팔 선언¹⁾ (Bhop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인도의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브라질·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인도·인도네시아·이란·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과 4개 파트너국(벨라루스·쿠바·카자흐스탄·태국), 총 14개국 55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²⁾.

보팔 선언은 문화·창의산업 협력, 유네스코 공동 등재 및 문화재 반환 강화, 전통지식체계 보호, 자발적 예술가 등록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문화협력 의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전문 (Preamble) 일부와 실행조항 1.9항이다. 핵심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채택 배경

2024년까지 BRICS 문화 트랙에서 저작권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었다. 저작권이 처음 의제로 오른 것은 2025년, 그해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에서였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G20 때부터 있었던 문화계의 요구사항이었고 브라질이 BRICS 의장국 임기에서도 이를 이어받았다고 보도³⁾했다.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논의는 회원국 합의를 거쳐 2025년 5월 브라질리아 선언⁴⁾(제10차 회의)의 독립된 장(1.1~1.8항)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중 저작권 관련 조항은 제1.5항의 AI 학습 과정에서의 보상·라이선스 방식에 관한 경험 교류와 제1.6항의 창작자에 대한 공정보상과 지식재산권 존중이었다.

2025년 7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BRICS 정상들의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선언⁵⁾'을 통해

1)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6/08/08175454/XI-BRICS.pdf>

2)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96478®=48&lang=1>

3) <https://www.agazeta.com.br/economia/brics-vao-defender-pagamento-de-direitos-autorais-por-conteudo-usado-em-ia-0725>

4)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5/12/29093228/BRICS-Culture-Ministerial-Declaration-2025.pdf>

5) <https://www.cnnbrasil.com.br/economia/seu-bolso/meu-dinheiro/cupula-do-brics-divulga-declaracao-sobre-governanca-de-ia-le>

이 의제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이 선언에서 AI의 무단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26년 의장국이 인도로 넘어가면서,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이 의제는 보팔 선언으로 이어졌다. 브라질리아 선언의 "경험 교류" 수준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위에 "법적·제도적 집행 메커니즘 강화"라는 한층 행동지향적인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브라질리아 선언에는 없던 "저작자·예술가의 디지털 플랫폼상 통제권"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3. 보팔 선언의 저작권 조항 상세

1) 전문(Preamble)

전문은 저작권 및 AI 관련 원칙을 밝힌다.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을 언급하며, “국내법과 관련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예술가·창작자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AI가 문화산업 자원 개발과 문화 창작·보존·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AI의 개발과 이용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사람 중심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지식·유산·문화적 가치가 데이터셋과 AI 모델에 불충분하게 대표됨으로써 발생하는 오용·왜곡의 위험을 인정하고, “AI 시스템이 모든 국가의 언어적·전통적·문화적·인구학적 다양성을 존중해 개발되어야 하며,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실행조항 1.9항

선언에서 저작권을 가장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은 1.9항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유자의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교류한다.
- ② 저작자와 예술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 ③ AI 시스템의 맥락에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에 관한 해법과 기준을 논의하고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증진한다.

4. 선언의 의의

BRIC에서 저작권 의제가 2025년 브라질리아 선언에서 처음 독립된 장으로 등장한 이후, 보팔 선언(2026년, 제11차 회의)까지 두 차례 연속으로 다뤄지면서 표현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다만 보팔 선언의 저작권 조항(1.9항)에는 "국내법과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권고적 표현이 쓰인 점을 볼 때, 이는 즉각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정치적 지향을 밝힌 공약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 각국의 입법이나 집행으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선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고자료

-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6/08/08175454/XI-BRICS.pdf>
-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96478®=48&lang=1>
-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5/12/29093228/BRICS-Culture-Ministerial-Declaration-2025.pdf>
- <https://www.cnnbrasil.com.br/economia/seu-bolso/meu-dinheiro/cupula-do-brics-divulga-declaracao-sobre-governanca-de-ia-leia-integra/>